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4년도 제7호

### [김현수칼럼]

#### 대표의 자격

김현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 여성 청소노동자들의 스포츠권을 실현해가는 호호체육관

#### 대학 내에서 즐기고 닦고... '배구'도 한다

박주연 일다 기자

#### 17개 시도선수단 총 1,054명(선수 486명, 임원 및 관계자 568명)

#### 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

지영배 뉴스캠프 기자

###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울산서 4월 25~28일 개최... 자원봉사자 모집

허광무 연합뉴스 기자

### [김소연의 인터뷰]

#### '드라마 대신 스포츠' 1200억 쓴다... OTT의 '이유 있는 변심'

김소연 한국경제 기자

#### 2024 체육시민연대 정기총회

2024.02.17(토) 오후 4시, 서초사무실

제3회 체육시민상 수상자: 이경렬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2024 체육시민연대 정기총회

2024.02.17(토) 오후 4시, 서초 사무실



## ○ 식순

### 1부 : 정기총회

- 사업 및 회계보고
- 감사보고
- 2024년 사업계획(안)
- 임원 선출 및 집행위 인준 등

### 2부 : 체육시민상 시상식

- "제3회 체육시민상 수상자 : 이경렬"

# 제3회 체육시민상



이경렬 동두천시민단체  
'변방의북소리' 대표

설 연휴 전부터 체육시민상이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수상하는 오늘까지도 무슨 까닭인지 딱 20년 전인 22살에 제 모습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저는 재수해서 2003년에 경민전문대학 생활체육과에 최종 예비합격으로 입학했습니다. 아직도 예비번호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예비 합격 34번. 3월 세째주 월요일 아버지는 급하게 구한 현금 300만원을 정장 안쪽 주머니에 넣고 저를 차에 태워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인 의정부 녹양동까지 묵묵히 운전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사업 실패 1년 차였습니다. 큰 포부로 몇몇 사람들과 돈을 모아 동두천 끄트머리에 개업한 작은 병원이 그렇게 쉽게 망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아버지는 늘 피곤하고 신경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에 저라면 대학을 가지 않고 출가해서 돈을 벌며 독립하는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요즘 다시 자문해 봤습니다. 그때 왜 그리 대학에 그것도 체육과에 가고 싶었는지? 며칠 만에 답을 찾으면서 저는 서른 살까지 제 정신을 지배했던 두핵심 의제를 실로 오랜만에 꺼내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한 체대생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중학교만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단 한번도 자가는커녕 전세에서 산 적이 없습니다. 서른 중반에 배체트라는 휘귀병에 걸려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장애등급을 받고 20년 뒤 정신분열증 판명도 받고 10년 가량 암투병을 하다 일흔도 안 된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3년 전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우리 가족은 고인에게 죄스럽지만 큰 걱정 하나를 떨치기 힘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몰래 사채나 은행에 채무가 있을까봐 전전긍긍 한 겁니다.

생전 신용 정보가 적힌 문서에 아무런 금액이 없는 것을 보고 엄마와 누나 그리고 저는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유산은 빚 0원"이라며 한숨을 돌렸습니다.

지금 엄마와 제가 지내는 곳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2년에 한번 씩 재산신고 증빙 서류를 보내서 일정 수준 소득이 확인 되면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주거지입니다.

제 어머니는 30년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외를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한 자녀 가정집에서 아이 두명을 봐주는 일을 했던 제 친할머니를 다시 동두천으로 모셔 오기 위해 비행기를 탔던 겁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37살에 처음 해외를 나갔던 해외가 일본이었습니다.

2017년도쿄올림픽 반대시민모임의 초청으로 보름 간 도쿄와 나가노를 둘러 봤습니다. 이후 두 번 더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 신일본스포츠연맹의 초대로 닷새간 가와사키와 요코하마를, 2020년에 친구들과 태국 치앙마이에서 여행을 갔었습니다.

저는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제가 가난한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동네엔 저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저는 경민대학, 삼육대학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다니면서 전문대에서 대학원의 등록금 금액만큼 제 가난을 더욱 체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역에선 가능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을 직접 만날 수록 제 가난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현재 동두천에서 장애인, 난민들의 체육활동을 조력하는 이유도 가난이란 공감대 때문입니다. 대부분 직장 구할 길이 없어 힘들게 삽니다. 옆 동네에 사는 나이지리아 이주배경의 세 쌍둥이 형제들이 탕후루를 못 먹어 봤다는 얘기에 마음이 동하고, 구명난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중학생을 보면 어쩔 줄 몰라합니다.

서울에서 4시간 거리인 지방에 사는 운동부 학생이 서울로 재활훈련 하러 갈 때마다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동두천 학교 밖 청소년센터장과 학교 밖 청소년의 체육활동 조력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체육시민상 수여는 체육시민연대의 가치관이나 시민사회운동 의제를 관통해서 그 고유한 빛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수상 얘기를 들었을 때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제가 투명한 빛이 체육시민연대를 투과할지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2월 내내 제 속에서 응축되어 나온 한 줄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빚추어 봅니다. 가난과 체육. 이것이 체육시민사회와 체육시민연대에 한 줄기 빛깔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고이 전합니다.

# [김현수 칼럼]

## 대표의 자격



축구대표팀이 연일 졸전에도 불구하고 아시안컵 4강이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4강전에서의 졸전과 팀 주전 선수들의 불화, 사후 경기를 평가하자던 감독의 느닷없는 귀가와 재택근무, 축구협회장의 무책임한 잠행, 감독의 경질로 일단락되는 듯하지만,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일 없는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가를 대표하기 위해 선발되고, 최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행정, 재정적 지원이 뒤따른다. 그래서 모름지기 국가대표는 실력이면 실력, 인성이면 인성 모든 것을 갖춰야만 할 것 같지만,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 실력은 출중하나 국가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태도가 불량하여 퇴출되는 선수들도 부지기수였다.

사실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에서 실력만 좋으면 되지, 인성까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다. 그만큼 누군가를 대표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국가대표는 어떤 의미에서 국민의 일원인 나 자신을 대표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이 될 만한 자질, 이른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격을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눈을 돌려 정치권으로 가보자. 대의민주주의의 대표를 뽑는 총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에 앞서 각 당은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 경쟁할 후보의 자격을 운운하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한다. 이들은 정당이라는 편을 나눠 경쟁 준비를 하는 터라 상대 후보보다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 각 당이 요구하는 대표선수의 기준도 달리 정한다.

총선이 여러 정당 대표 간의 경쟁이라 각기 특색을 갖기 위해 노력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대표'의 자격에 관한 것이다. 우선 각 당의 구분을 차치하고, 대표가 될 자격 요건을 무작위로 나열해보면, 성범죄,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강력범죄, 마약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 범죄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금품 살포,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알선수재 등 부정행위는 안 된다.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는 본인은 물론 가족도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며, 금고 이상 확정 시 세비반납도 안 하면 안 된다.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겠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꼭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유력 정치인 또는 공직자와 친밀하면 좀 봐주는 것 같기도 하도, 뇌물은 경우에 따라 받아도 무방한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정당의 대표선수가 되지 못할 분위기가 감지되면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 탈당하면 이런 기준조차도 무색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민의를 대표할 공복을 뽑으면서 과연 '하지 마라'는 것만 안한 자들에게서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을 발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희생을 통해 민주화 운동을 한 이력이나, 민생, 경제,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온 이력 따윈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자격 미달자를 추려내는데 온갖 관심이 집중되는 현실에서 정치의 본질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축구 국가대표선수와 정치인 모두 국민을 대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누군가에게는 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내맡기는 신뢰받는 존재들이어야만 한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떤 행위 따위를 "하지 않은"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 존재는 우리의 이상향에 동떨어진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린 정치와 축구를 불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매력적인 '대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존경받는 국가대표 선수와 정치인 모두, 국민들을 대표할 만한 일들을 꾸준히 해왔기에 그것으로 평가받고, 국민들을 대표할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다. 그런 대표의 자격이 더욱 강조되는 오늘이기를 바란다.

# 대학 내에서 쓰고 닦고... '배구'도 한다

“이거 하고 나면은 땀도 짝 나고, 배구가 너무 좋더라고 해 보니까. 더 돈독해졌지. 아무래도 더 재밌고. 내가 안가려고 하면 ‘언니 빨리 가, 가야 돼. 가서 하고 와야 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호호체육관 참여자 전창현 씨, 문화연대 유튜브 영상 “호호체육관 여성 청소노동자의 스포츠권을 실현하다” 중에서

중년 여성들이 모여 어색하게 공을 만지작거린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며 손을 삼각형으로 만들어 공을 토스하는 연습을 한다. 선생님의 지도에 맞춰 공도 때려본다. 이렇게 배구를 배우고 있는 이들은, 서강대학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어쩌다 체육관에 모여 배구를 하게 됐을까?

그 사연을 알기 위해선 호호체육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문화연대에서 진행한 호호체육관 프로젝트가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올해의 계획을 세우며 스포츠인권과 노동권을 함께 고민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총 5회차로 계획 중인 이 워크숍은 대학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과 스포츠권에 관심있는 학생, 2024년도 1학기 호호체육관 프로젝트를 함께하고픈 퍼실리테이터, 호호체육관을 애정하는 시민 모두를 환영한다.

2월 7일 문화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워크숍 1회차에선 박이현 문화연대 활동가가 호호체육관의 시작부터 미래 계획을 들려줬고, 서강대학교 한울 씨, 연세대학교 태현 씨, 고려대학교 아랑 씨가 학생으로서 함께 호호체육관에 참여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보탤다.

배구하는 청소노동자, '호호체육관'에 있다

문화연대 내엔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인권침해 없는 스포츠 현장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대안체육회가 있다. 대안체육회는 “체육계 내 대한체육회 중심의 구조와 엘리트 스포츠 육성 시스템, 그리고 체육계의 낮은 인권감수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 시민운동을 확장”하는 여러 활동을 구상하고 실천하고자 한다. 박이현 활동가는 “모두의 스포츠”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3년 한해 동안 웹진 움-직 발행, 모두의 운동회 개최, 그리고 호호체육관 운영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호호체육관은 “그동안 엘리트 스포츠 육성 중심의 시스템과 유명 선수들의 극복과 승리의 서사에 가려져 있던 사람들의 스포츠권에 주목”하며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등 스포츠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을 스포츠의 현장으로 초대하여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이들의 스포츠권을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목표에서 시작됐다. 참여자들은 대학교에서 일하는 여성 청소노동자들이다.

청소노동자들의 삶에 운동을 더하고자 처음 시도한 건 요가였다. 대학교 내 체육관에서, 노동자들의 점심 시간에 진행한 요가클래스 1기(2022년 11월~12월)와 요가클래스 2기(2023년 3월~6월)엔 25명이 참여하며 호응을 얻었다. “정원 25명으로 모집했는데 딱 찬 신청”이었다. 박이현 활동가는 “점심 시간에 하는 거기도 하고, 중년 여성들은 운동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서 놀랐다”고 했다.

시작할 때만 해도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던 이 프로젝트는 “청소노동자들이 요가 강사 동작을 따라 하며 웃는 모습에서 호호체육관이라는 이름도 얻게” 됐다.

요가에 대한 호응은 좋았지만, 문화연대 활동가들은 참여자들이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조금 더 상호작용이 있는 운동을 시도해보자고 생각하게 된다. “팀 스포츠를 하자”고 생각했을 때 떠오른 건 배구였다. “청소노동자들은 늘 바닥을 쓸고 닦으니 바닥을 자주 보잖아요. 그렇다면 하늘을 볼 수 있는 스포츠를 하자, 배구를 하자고요.”

다음 장 계속

그렇지만 막상 모집을 하려고 보니 걱정됐다. 어쩌면 낯설지 모르는 이 종목에 선뜻 참여하는 노동자가 있을까? 신청자가 없으면 어떡하지 염려했지만 “다행히 9명이 신청”한 덕에 배구 클래스가 시작됐다.

꾸준히 참여하는 청소노동자들(언니들) 덕분에 배구 또한 2기(2023년 10월~12월)까지 열렸다. 박이현 활동가는 “참여한 청소노동자들이 (배구하는 걸) 좋아하고 재미있어했다”고 했다. “점심 시간에 이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운동장을 도는 걸기를 늘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운동 프로그램을 해 봐야겠다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걸기만 하는 건 재미 없잖아요. 근데 배구는 재미있는 거죠.”

학교 청소노동자와 함께 운동할 학생들 모여라!

호호체육관 배구클래스는 문화연대뿐 아니라 서강대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가 공동 주최했다. 박이현 활동가는 “문화연대가 청소노동자와 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내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이 연대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노고지리와 연이 닿았고, 학생들이 프로젝트 퍼실레이터도 맡게 됐다. 학생들은 참여자들의 꾸준한 참여를 독려하고,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 역할을 담당했다.

박이현 활동가는 “사실 작년 서강대에서 진행한 호호체육관의 경우 조금 특이한 사정이 있어서 체육관 사용이 원활히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이와 관련된 부분이 어떤 ‘논쟁’이 될 수도 있다”며 그렇기에 “학생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내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거다 보니 학생들의 체육관 사용 시간과도 조율이 잘 되어야 하고, 사용 승인/대관 절차도 진행해야 하는데 호호체육관과 함께하는 학생들이 없다면 상황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것.

나아가 박이현 활동가는 지난 6일 연세대 학생 측의 패소 판결이 난 ‘학내 집회를 연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를 주장하며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야기를 꺼냈다.

“대학에서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대놓고 공격하는 일이 있었던가 싶어요. 학생과 청소노동자들의 연대 관계를 복원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죠.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만 어떤 관계 맺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호호체육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연세대학교 비정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태현 씨도 이야기도 보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과 그에 동조했던 학생들을 보며,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있는 이들이 내 옆에 있다는 감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일이 나와 상관 없는 일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일이라는 걸 깨닫는 일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스포츠가 접근하기 쉬운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태현 씨는 실제로 청소노동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눌 일이 그리 많지 않다며, 호호체육관이 그런 상황을 바꿔줄 수 있기를 기대했다. “(청소노동자들을 만나는 방법은) 직접 휴게실에 찾아가거나 집회 때 만나거나. 그 외엔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같이 스포츠를 하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2024년, 같이 운동할 ‘언니들’도 더 많아질 것!

박이현 활동가는 올해 호호체육관 활동을 더 늘릴 예정이라 밝혔다. 이제 곧 다가오는 상반기 개강에 맞춰 서강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할 계획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엔 2개 대학을 더하려고 한다. 문화연대 대안체육회 활동 중에서도 호호체육관 비중을 늘린 만큼 더 많은 대학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어느 정도 참여 학생들이 확보돼야 하기에 일단 올해는 4개 대학교가 목표다.

“청소노동자들 간에 더 끈끈한 관계를 맺자, 더 가까워지자”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목표다. “사실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라고 해도, 한 건물을 담당하는 사람은 몇 명 밖에, 심지어 한 명일 때도 있어서 서로 잘 모르더라고요. 어색한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같이 운동을 하니 확실히 친해져요. 수업에 안 나오면 전화 걸어서 재촉하기도 하고요.(웃음)”

함께 운동하기와 더불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도 고민 중이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학생 퍼실레이터의 아이디어들을 적극적으로 받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연대 차원에서 호호체육관을 통해 스포츠인권에 대한 연구 또한 해나가고자 한다. “이 (스포츠인권) 분야에선 아직 다양한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기초 연구들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걸 바탕으로 사회적인 캠페인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의미 있는 호호체육관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기 위해선 각 대학 내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체육관 사용과 관련된 부분도 잘 조율해 나가야 한다. 물론 이 운동을 함께 할 청소노동자들을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연대는 2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총 5회 <대학비정규직노동자의 스포츠권을 위한 호호체육관 봄맞이 워크숍>을 진행한다. >신청 링크: <https://bit.ly/hoho2024ws1>

2024년, 더 늘어날 호호체육관엔 또 어떤 땀과 웃음이 자리할까?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자료 출처: <https://www.ildaro.com/9837>



# 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유인촌)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가 주최하며, 종목별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이하 장애인동계체전)'가 2월 18일(일)부터 21일(수)까지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열린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2월 18일(일), 평창돔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개 시도 선수단 총 1,054명(선수 486명, 임원 및 관계자 568명)이 참가한 가운데 7개 종목을 두고 기량을 겨룬다. ▲알파인스키와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스노보드 종목은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와 휘닉스평창에서, ▲아이스하키 종목은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컬링 종목은 이천선수촌에서, ▲빙상(쇼트트랙) 종목은 춘천송암스포츠타운 빙상경기장에서 각각 열린다.

2004년 첫 대회 개최 이후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장애인동계체전은 우수한 동계 스포츠 선수를 발굴하고 그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최대 겨울 스포츠 대회로서 장애인 동계 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해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 왔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3월 2일부터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2023 에르주룸 동계 데플림픽'과 강릉에서 열리는 '2024 세계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두고 우리 선수단의 기량을 점검한다. 아울러 '2026년 밀라노 동계패럴림픽'을 대비해 '알파인스키' 슈퍼대회전 번외경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등 참가종목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기를 치른다.

종목별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경기 일정과 경기장 위치 등 상세한 정보는 장애인동계체전 공식 누리집에서, 대회 관련 이야기와 뉴스는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지난 1월에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결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33.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체육 참여 정도가 높은 장애인들이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보다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장애인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저변이 넓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울산서 4월 25~28일 개최... 자원봉사자 모집

울산시는 4월 울산에서 열리는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를 3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대축전 자원봉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자원봉사자 기본자세와 참여 의지, 직무 역량, 책임감 등을 심사해 3월 말 9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4월 25~28일 열리는 대축전 개·폐회식과 종목별 경기장에 배치돼 각종 행사와 경기 진행, 홍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활동복과 보조 가방, 매뉴얼 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원봉사 종료 후에는 실비를 지급하고 참여인증서도 발급한다.





# '드라마 대신 스포츠' 1200억 쓴다... OTT의 '이유 있는 변심' [김소연의 인터뷰]

드라마보단 스포츠다.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해 충성도 높은 고객을 모집하겠다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OTT)들의 변화가 감지됐다. 이전까지 '오리지널 콘텐츠'로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이 꼽혔다면 최근엔 독점 스포츠 중계로 충성도 높은 팬덤을 끌어들이겠다는 흐름이 돌보이고 있다. 국내에선 티빙이 올해부터 3년간 총 1200억원을 주고 한국 프로야구(KBO) 리그 중계권을 따냈다. 연간 400억원 규모다. 해외에서도 넷플릭스가 프로레슬링 10년 중계권에 6조7000억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국내에서 스포츠 중계의 효과를 보여준 건 쿠팡플레이였다. 티빙, 웨이브에 비해 후발주자였던 쿠팡플레이는 배우 김수현, 장근석, 수지 등을 투입한 오리지널 콘텐츠 '어느 날', '미끼', '안나' 등을 각각 선보여 왔지만, 대중적인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다. 하지만 해외 축구 등 각종 스포츠 중계를 시작하면서 팬들을 끌어모았고, 단숨에 국내 OTT 플랫폼 강자로 성장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중계 역시 티빙과 쿠팡플레이가 각각 온라인 생중계를 했는데,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공개한 1월 주요 OTT 사용자·사용 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플레이와 티빙은 넷플릭스에 이어 나란히 2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용자 수는 쿠팡플레이가 805명으로 티빙 551만명보다 많았지만, 이용 시간은 티빙이 3248만 시간으로 쿠팡플레이 2021만 시간을 앞섰다. 특히 쿠팡플레이의 1월 이용자 수는 2023년 1월 대비 66.2%, 티빙은 같은 기준으로 25.4% 증가했는데, 이는 스포츠 중계권 효과라는 해석이다.

"치솟는 제작비, 충성도 높은 스포츠로"

업계에서는 인건비, 특히 한류스타들의 출연료가 치솟는 것에 비해 이들이 내놓는 콘텐츠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가성비 좋고, 효과가 확실한 스포츠 중계로 OTT 플랫폼들이 눈을 돌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티빙은 2020년 61억원, 2021년 762억원, 2022년 1192억원으로 연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티빙이 프로야구 중계에 통 큰 배팅을 했다. 티빙이 제시한 연간 400억원은 기존 중계권료의 2배 가까운 금액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토종 OTT 1위 자리를 쿠팡플레이에게 빼긴 티빙의 결단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포츠 중계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디즈니의 ENSP과 계열 채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폭스의 스포츠 전문 채널들도 올해 가을 공동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한다. 아직 해당 플랫폼의 이름과 구체적인 요금제 가격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디즈니와 폭스, 워너가 각각 3분의 1씩 지분을 소유한다.

대형 미디어 기업들이 결합해 스포츠 중계 전문 플랫폼을 내놓는 것을 두고 미국의 엔터 전문지 버라이어티는 "기존의 스포츠 중계방송 세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며 "세 회사가 뭉쳐 중계료를 지불하면서 새로운 중계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3사가 보유하고 있는 중계 권리는 미국 프로 스포츠 전체의 85% 정도로 알려진 만큼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넷플릭스는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 인기 프로그램인 'RAW'의 10년 독점 중계권을 획득을 위해 50억 달러(약 6조7000억원) 이상을 지불할 것으로 알려졌다. NBC유니버설 산하 USA네트워크는 5년에 13억 달러(약 1조7000억 원)를 WWE에 지불하는 것을 고려하면 2배 가까이 많은 금액이다.

유튜브는 미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꼽히는 미국 프로풋볼리그(NFL) 일요일 경기 중계권을 획득하기 위해 7년간 매년 평균 20억 달러(약 2조6700억 원)를 내는 계약을 맺었고, 매달 구독료를 내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전 경기를 볼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 프로축구를 볼 수 있는 상품도 출시했다.

애플이 운영하는 OTT 애플TV+는 미국프로축구(MLS) 시즌 시청권으로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 OTT는 어떻게 되나

다만 일각에서는 OTT들이 나서 중계료를 높이고, 각기 다른 유료 요금제를 내놓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스포츠는 TV 큰 화면으로 본다", "중계는 공짜다"는 공식이 사라지고 OTT와 유튜브로 주요 경기들과 하이라이트 영상을 감상하는 추세가 두드러지는 것에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것. 실제로 2021년 쿠팡플레이는 도쿄올림픽 온라인 중계권을 확보하려 했지만,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후 흐지부지됐다.

실제로 방송법에서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로 지정된 스포츠 이벤트는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들이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을 구매해 유료로 서비스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보편적 시청권과는 관계가 없다. 이 때문에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제도도 보완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송가의 한 관계자는 "이제 스포츠 업계로 '편의 전쟁'이 이동한 게 아니겠냐"며 "이미 여러 플랫폼에서 스포츠 중계의 흥행력과 사업성이 입증된 만큼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전지훈련 성지' 경남 고성군, 스포츠 중심 도시로 비상

<https://www.yna.co.kr/view/AKR20240219063700052?input=1195m>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평가 '우수' 등급 획득

<https://mksports.co.kr/view/2024/122579>

허현미 경인여대 교수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 취임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576>

남양주시, '1인 1체육'을 위한 '어린이 테니스 아카데미' 개강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29819/?sc=Naver>

포항시체육회·경북도포항의료원, 지역 체육복지를 위한 상호교류 협약체결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219516072?OutUrl=naver>

목포시 전국소년·장애학생 체육대회 개최 준비

<https://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56205>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2024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사업 확대한다!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400426?ref=naver>

강원도 우수 학생선수, 국외현장체험학습

<https://www.nocutnews.co.kr/news/6095135>

파주시, '2024 경기도체육대회' 경기장 보수·안전 점검

<https://www.yna.co.kr/view/AKR20240219078300060?input=1195m>

# 체육시민연대

##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